1. 신석기시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삼동 패총에서는 조가비 가면이 출토되어 제의를 행할 때 주술과 관련된 의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②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남성 조각품이 출토되어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이미 가부장제 사회로 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석기시대의 주거생활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탑리, 온천 궁산리, 양양 지경리 등이 있다.
④ 서포항 유적에서는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장신구가 출토되었는데, 이들을 통해 토테미즘(Totemism)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1. 정답 : ②
청진 농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지만, 높이 5.6㎝의 여자 조각품이 발굴되었고, 가부장제 사회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다. ① 조개 껍데기 가면은 부산 동삼동 유적과 옹진 소야도에서 출토되었는데, 주술과 관련된 의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신석기 시대 대표적 유적지로 움집터와 함께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던 서울 암사동 유적과 탄화된 조와 피가 발견된 황해도 봉산 지탑리 유적, 돼지 이빨을 갈아 만든 낫과 사슴의 뿔로 만든 괭이가 출토된 평남 온천 궁산리 유적, 사람 얼굴 형상의 조형물이 출토된 강원도 양양 지경리 유적 등이 있다. ④ 함북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 유적에서는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호신부(護身符)가 출토되었는데, 토테미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 신라의 관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6세기 초 법흥왕 때 완성되었다.
② 왕경인에 대한 경위(京位) 17관등과 지방인에 대한 외위(外位) 11관등으로 구성되었다.
③ 6두품은 아찬(阿飡)까지, 5두품은 대사(大舍)까지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④ 삼국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6두품 이하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위(重位)제도라는 일종의 특진의 길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2. 정답 : ③
신라의 골품제에서 6두품은 6관등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승진이 가능하였다. ① 골품제도는 6세기 초 법흥왕 때 완성되었다. ② 신라에서는 왕경인(경주 거주인)에게는 17관등으로 된 경위(京位)제가 적용되었고 지방민에 대한 차별로 인해 지방민은 외위(外位) 11관등제가 적용되었다. ④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골품제의 승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위제를 실시하였다. 즉 6관등 아찬에 이른 6두품을 대아찬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아찬 내에서 계속 승진할 수 있도록 4중 아찬제를 실시하였으며, 5두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0과등 대나마를 9중 나마로 편제하였다.

3. 다음 중 삼국의 한강유역 쟁탈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비(碑)는 모두 몇 개인가?

㉠ 북한산비	㉡ 단양적성비	㉢ 사택지적비
㉣ 중원고구려비	㉤ 백두산정계비	㉥ 광개토대왕릉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 정답 : ③
북한산비는 6세기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단양 적성비는 6세기 진흥왕이 단양 적성 전투에서 고구려를 격파한 사실과 함께 남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중원고구려비는 5세기 후반 장수왕이 남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석들은 직접적으로 한강유역의 쟁탈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강 유역에 세워져 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경우는 내용상으로 백제가 차지한 한강유역을 쟁탈한 사실과 백제 성을 공취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역시 한강 유역 쟁탈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사택지적비는 7세기 백제의 좌평을 지냈던 사택지적이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여유로움과 함께 불당을 세운 내력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학의 발달과 도교의 융성을 보여주는 비석이므로 한강 유역 쟁탈과는 관련이 없다. ㉤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청의 요청에 따라 조선과 청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서쪽으로 압록강에 이르고, 동쪽으로 토문강에 이르니, 이것으로서 분수령을 삼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토문강의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하였다. 백두산 정계비는 한강 유역의 쟁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다음 신라시대 불교문화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혜초는 인도를 순례한 후『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원효는『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 의상은 화엄사상 뿐 아니라 관음신앙을 이끌며 많은 사찰을 세웠다.
㉣ 신라 말기에 교종 승려들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들여왔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정답 : ②
㉠ 통일신라 승려 혜초는 페르시아, 인도, 아라비아까지 순방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의상은 전제 왕권 강화와 관련된 화엄사상과 함께 현세구복적 대중불교를 지향한 관음신앙을 이끌며 부석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고 부석사를 건립한 것은 의상이다. ㉣ 신라 말기에 선종 승려들이 풍수지리사상을 들여왔으니, 그 대표가 도선이다.

5. 다음이 나타내는 고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였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다.
> <일본에 보낸 무왕의 국서>

① 선왕(宣王) 때에는 3성 6부의 지방 행정 구역이 완비되었다.
② 이들 집단이 처음으로 터를 잡았던 동모산(東牟山)은 오늘날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돈화시에 있는 성산자 산성으로 여겨진다.
③ 초기 왕족 등 지배층의 무덤인 육정산고분군은 고구려계 양식인 석실봉토분이다.
④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5. 정답 : ①
제시된 내용은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이며, 이 국가는 발해이다. ① 3성 6부는 지방제도가 아니라 중앙 정치 제도이며, 문왕 때에 정비되었다. 지방 행정 조직으로서 5경 15부 62주는 9세기 전반 선왕 때 정비되었다. ② 대조영이 터를 잡았다 발해의 초기 도읍은 만주 길림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있는 성산자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③ 정혜공주묘를 비롯한 초기 발해 지배층의 무덤은 동모산 근처의 육정산 고분군으로 굴식돌방무덤(석실봉토분)으로 제작되었다. ④ 발해는 926년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6.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왕은 아첨하는 소인들을 항상 옆에 두고 남몰래 희롱하며 정사를 돌보지 않으므로 기강이 문란해졌고 또한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은 사방으로 유리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국내가 어지럽게 되자, 견훤은 몰래 딴 마음을 먹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서남쪽 주현의 적도들을 토벌하니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호응하여 한 달 사이에 5천명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① 귀족과 호족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草賊)이 되었다.
② 6두품 세력은 골품제를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성리학을 제시하였다.
③ 후삼국의 정립으로 신라의 지배권은 왕경 부근의 경상도 일대로 축소되었다.
④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호족세력이 성장하였다.

6.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신라 말기의 상황이다. ② 성리학은 고려 후기에 전래되었으며, 성리학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정치세력은 신진사대부이다.
① 신라 말기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귀족과 사원의 불법적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었다. ③ 10세기에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의 혼란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의 지배권이 경주 일대로 축소되면서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④ 신라 말기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 호족세력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호족의 유형에는 촌주세력, 군진세력, 해상세력, 초적세력이 있었다.

7.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고려시대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숙종의 후원을 받아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건하여 법상종과 선종의 여러 종파의 대립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① 남중국에 파견되어 천태학을 전했다.
② 풍수지리사상을 정립하여 궁궐과 사찰 건립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③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내세워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④ 송, 요, 일본의 불교서적을 모아『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7. 정답 : ④
제시된 내용은 해동 천태종을 창건한 대각국사 의천과 관련된 사실이다. ④ 의천은 송, 요, 일본의 불교 주석서들을 모아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교장(속장경)을 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참조한 주석서들의 목록으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간행하였다. ① 남중국에 천태학을 전파한 승려는 광종 대 의통과 제관으로,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가 되었으며, 제관은 중국에서 『천태사교의』라는 명저를 저술하였다. ② 풍수지리사상을 정립하여 궁궐과 사찰 건립의 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승려는 도선이다. 도선은 풍수지리설의 대가였으며, 고려 태조는 『도선비기』로부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 궁궐과 사찰을 건립하였다. ③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바탕으로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시도한 승려는 보조국사 지눌이다. 의천은 교관겸수, 내외겸전, 성상겸학을 주장하였다.

8. 다음 주장을 편 인물의 건의를 받아 실시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에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요, 내세는 지극히 먼 것입니다.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고려사』-

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② 유교의 학식과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하였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③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며, 지방 중소 호족을 향리로 편입하여 통제하였다.
④ 정방을 폐지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8.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성종 대 제시된 최승로의 '시무 28조'이다. ③ '시무 28조' 중 제7조에는 향호를 억제하기 위해 지방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고려 성종 대에는 12목에 고려시대 최초의 지방관인 목사가 파견되었다. 아울러 성종은 향리제도를 정비하여 지방 호족을 향리로 편입시켰다. ① 노비안검법의 실시를 통해 호족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했던 왕은 고려 광종이고, 최승로는 광종 때 실시되었던 노비안검법을비판하면서 노비환천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② 고려시대 후주의 귀화인인었던 쌍기의 건으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백관의 공복(4색 공복제)을 제정한 것도 광종 대의 사실이다. ④ 정방을 폐지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을 억제하고 국가 재정 확보 및 왕권 강화를 시도한 것은 공민왕 대의 사실이다.

9. 고려시대에 있었던 외적의 침입에 대한 사실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최광윤의 보고에 따라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 조직
> ㉡ 김윤후가 이끄는 민병과 승군이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 사살
> ㉢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 축조
> ㉣ 고려왕의 친조를 요구하며 침입한 거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전멸시킴
> ㉤ 삼별초는 개경환도에 반대하며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이동하며 대몽 항쟁 추진
> ㉥ 서희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압록강 동쪽 280여리 지역을 거란으로부터 돌려받음
> ㉦ 홍건적이 침입하여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안동으로 피난하였으나 정세운, 이방실 등이 격퇴시킴

① ㉠-㉥-㉣-㉡-㉢-㉦-㉤
② ㉠-㉥-㉣-㉢-㉡-㉤-㉦
③ ㉥-㉠-㉣-㉢-㉡-㉤-㉦
④ ㉥-㉣-㉠-㉢-㉡-㉦-㉤

9. 정답 : ②
㉠ 서경의 입지를 강화하고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청천강 유역에 30만의 광군을 조직한 것은 고려 정종 때의 사실이다.(945) ㉡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것은 몽골 2차 침입 때(1232)의 사실이다. ㉢ 고려 예종 2년(1107) 12월 윤관은 부원수 오연총과 함께 17만의 대군을 이끌고 함흥평야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것이 동북 9성의 축조이다. ㉣ 고려가 친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고려에 침입해 왔다(거란의 3차 침입, 1018). 이에 강감찬은 곳곳에서 거란군을 격파했으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란이 패퇴하자 이를 다시 추격하여 구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섬멸시켰다(귀주대첩). ㉤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대몽 항쟁을 전개한 것은 개경환도 직후인 1270년에서 1273년까지의 사실이고, ㉥ 서희가 거란의 소손녕과의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은 거란 1차 침입 때인 993년의 사실이다. 이 담판을 통해 고려는 송과 단교하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인정받았으며,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안동)으로 피난한 것은 1361년의 사실이다.

10. 다음 ㉮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은(는) 고려와 몽골간의 전쟁 과정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270년에 고려와 몽골사이에 강화가 체결되면서 개경환도가 결정되자 이들은 조정의 결정에 불복하였다. 이후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항쟁을 계속하였는데, 이 때 육지의 반몽세력과 연합하여 강력한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다.

<보기>

> ㉠ 이들은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이자 무력적 기반이었다.
> ㉡ 그 구성원은 특별히 선발한 뛰어난 무사들로 구성되었는데, 관군과 귀족장교로만 선발하였다.
> ㉢ 이들은 규모가 커진 야별초(좌별초, 우별초)와 대몽항쟁 과정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이들로 창설된 신의군을 합하여 만들어졌다.
> ㉣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하면서 김통정의 지휘를 받았으나,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김통정이 전사하자 배중손이 그 지휘를 이어받아 제주도에서 항전을 계속하였다.
> ㉤ 무신정권의 사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국왕의 시위와 도적의 체포도 담당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서 밑줄 친 ㉮에 들어갈 조직은 삼별초다. ㉠, ㉢ 삼별초는 초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야별초로 조직된 이후 최우의 지원을 받으며 좌별초와 우별초로 확대되었고, 몽골 침입 때 몽골에 잡혀갔다 돌아온 포로들을 중심으로 신의군이 조직되면서 삼별초라 불렸다. 이들은 최우의 지원의 받으며 최씨 정권의 사병집단으로 성장하였다. ㉣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국왕의 시위와 도적의 체포 등의 치안 업무도 담당하였다.
㉡ 삼별초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던 야별초가 좌별초 · 우별초로 분리되었고, 이후 대몽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의군을 포함하여 조직되었다. 그러므로 삼별초의 구성원이 관군과 귀족장교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할 때는 배중손의 지휘를 받았다. 그러다가 진도가 함락되면서 왕으로 삼았던 승화후 온과 지도자 배중손이 전사하면서 삼별초는 다시 김통정의 지휘 아래 근거지를 제주도로 옮기고 마지막 항전을 계속하였다.

11.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광해군 즉위년에 이원익 등의 주장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그 후 실시지역이 확대되어 숙종 34년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관할하는 관청으로 선혜청을 두었다.

① 제 고장에서 나지 않는 물건을 공물로 내게 하거나, 서리가 상인과 결탁하여 공납물을 미리 국가에 바치고 그 값을 비싸게 책정하여 농민에게 받아냈다.
② 사족이 군역을 회피하는 풍조가 생기고, 요역을 담당할 장정들이 크게 줄어들자 군인을 요역에 동원하게 되었다.
③ 보인(保人)으로부터 조역가를 받아내서 이를 삯전으로 내고, 품을 사서 자신의 역을 대신 지게 하는 대립(代立)이 성립되었다.
④ 춘궁기에 빈민에게 식량을 빌려주고 원곡만을 회수하는 의창제를 대신하여 상평창제가 실시되면서 원곡의 10%를 이자로 받았다.

11. 정답 : ①
제시된 제도는 광해군 대 시행되어 숙종 대 전국으로 확대된 대동법이다. ①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을 배경으로 이를 개혁할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농민들은 정부의 공물 납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고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이나 납부 기준에 맞지 않는 물품을 다른 고장으로부터 구입하여 납부해야만 했다. 이처럼 공물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농민 대신에 납부하고 농민으로부터 그 대가를 많이 챙겼는데, 이를 방납(防納)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납의 폐단은 농민의 부담으로 직결되어 농민의 유망이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광해군 대에는 방납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② 군역의 요역화는 15세기 말에 나타난 폐단으로 가혹한 요역 부담으로 인해 농민의 유망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대립과 방군수포의 배경이 되었다. ③ 대립은 15세기 군대의 저질화와 대립가 부담으로 인한 농민의 유망을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6세기 군적수포제가 실시되는 원인이 되었다. ④ 환곡제도는 15세기 춘대추납의 무이자로 운영되다가 15세기 말 1/10의 이자를 받게 되었는데, 16세기 의창을 대신하여 상평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점차 이자액이 증가하면서 고리대로 변질되었다. 환곡제의 폐단은 공납제도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대동법의 시행 배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12. 다음 반정(反正)을 도모한 정치세력의 대외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적신 이이첨과 정인홍(鄭仁弘) 등이 또 그의 악행을 종용하여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을 해도(海島)에 안치하여 죽이고…… 대비를 서궁(西宮)에 유폐하고 대비의 존호를 삭제하는 등 그 화를 헤아릴 수 없었다. 선왕조의 구신들로서 이의를 두는 자는 모두 주방하여 당시 어진 선비가 죄에 걸리지 않으면 초야로 숨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였다. 또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켜 해마다 쉴 새가 없었고, 간신배가 조정에 가득 차고……임금이 윤리와 기강이 이미 무너져 종묘사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개연히 난을 제거하고 반정(反正)할 뜻을 두었다.
>
> -『조선왕조실록』-

① 명나라 신종에게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갚기 위해 만동묘를 설치하였다.
② 광해군 집권당시에는 중립외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③ 명의 원군요청에 적절히 대처하고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였다.
④ 대의명분보다 실리를 중요시하는 외교정책을 제시하였다.

12.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1623)이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1623)을 일으킨 서인은 인목대비 유폐와 영창대군 사사 및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빌미로 반정을 단행하였다. ① 서인은 의리와 명분을 바탕으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였으며, 존화주의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을 주장하였다. 명나라 신종에게 재조지은(再造之恩 : 무너지는 왕조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을 갚기 위해 화양서원 안

에 만동묘를 설치(1705)한 것은 존화주의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광해군 집권기에 중립외교를 추진한 것은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북인이고,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였다. ③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주장하였다. 명의 원군 요청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도모한 것은 광해군과 북인 정권의 실리 외교의 내용이다. ④ 서인은 실리보다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제시하였다.

13. 다음 비문(碑文)을 세운 조선후기 왕(王)의 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두루 하면서 무리 짓지 않는 것이 곧 군자의 공심이고
> 무리 짓고 두루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소인의 사심이다.
>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 (比而不周 寔小人之私心)

① 전국적인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을 활발하게 추진하여『여지도서』,『동국여지도』등이 간행되었다.
②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준론탕평(峻論蕩平)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양역의 군포를 1필로 통일하는 균역법을 시행하였고, 『수성윤음』을 반포하여 수도방어체제를 개편하였다.
④ 국가의 문물제도를 시의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속대전』,『속오례의』,『속병장도설』 등 많은 편찬사업을 이룩하였다.

13. 정답: ②
제시된 사료는 영조가 세운 탕평비의 내용이다.
② 준론탕평은 정조가 시행했던 탕평책이다. 준론 탕평은 당색에 관계없이 시비를 가리는 엄격한 의미의 탕평책을 말한다. 영조는 자신을 스승이자 초월적 군주의 지위에 두고,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사를 등용하여 국왕에게 복종시키는 완론탕평을 추진하였다.
① 영조 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수정 · 보완하여 『여지도서』가 편찬되었으며, 신경준이 편찬을 감수한 조선총도인 「동국여지도」가 제작되었다. 「동국여지도」는 조선총도(축척 1:112만)와 8개의 지방별 도폭, 경성도면으로 구성되었다. ③ 영조 26년(1750)에는 양인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하였고, 수성윤음을 발표(1751)하여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의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④ 영조 대에는 『속대전』, 『속오례의』, 『속병장도설』, 『해동악장』, 『동국문헌비고』, 『여지도서』 등이 편찬되어 흐트러진 문물이 재정비되었다.

14. 다음이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삼포왜란을 계기로 설치된 임시관청이며, 1555년 을묘왜변을 계기로 정식 관청이 되었다.
> ㉡ 정청(政廳)과 권부(權府)라는 이중성이 상존된 것이며, 이의 존치는 결국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심화시킨 것이었다.
> ㉢ 임진왜란 이후 국정의 모든 사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최고 정무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 조선 후기 확대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하던 국가 행정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왕권도 약화시켰다.

① 홍문관 ② 승정원
③ 춘추관 ④ 비변사

14. 정답 : ④
비변사는 삼포왜란(1510)을 계기로 병조 예하의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을묘왜변(1555) 이후 상설 기구화 되었다. 비변사는 임진왜란(1592) 이후 군사 · 행정 · 외교 등을 총괄하는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이로서 정청(政廳 : 정치적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과 권부(權府 : 권력의 핵심 실세)라는 이중성이 상존된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비변사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심화시킨 것이었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왕권이 약화되었고,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도 유명무실해졌다. ① 홍문관은 세조 대 문한기구(서적 관리)로 설치되었다가 성종 대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언관으로 정착되었다. ② 승정원은 도승지를 중심으로 한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다. ③ 춘추관은 궁중 역사 편찬과 실록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15. 다음은 조선 후기 실학자의 활동을 설명한 것이다. 밑줄 친 ㉠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는)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및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비판한 책을 지었다. ㉠ 은(는) 붕당이 선비들의 먹이다툼에서 생겼다고 보고 선비들도 농사를 짓고, 과거시험의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격자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① 호구에 부과하던 역역을 토지에 일괄 부과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국가재정을 충실히 할 것을 내세웠다.
② 은광의 개발, 화폐의 유통, 선박과 수레의 사용 등을 주장하여 유통 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③ 부세를 완화하고, 서얼 허통을 방지하며, 호포제 실시를 반대하였다.

④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매 호마다 영업전(永業田)을 갖게 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토지 균등을 이루자고 주장하였다.

15.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에서 밑줄 친 ㉠의 실학자는 이익이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천지 · 만물 · 인사 · 경사 · 시문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소개, 비판하였다. 또한 이익은 붕당론을 통해 붕당 정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선비들도 농사를 지을 것, 과거의 식년시를 5년으로 늘려 합격자를 줄일 것, 천거제도를 병행하여 재야인사를 등용할 것, 이조와 병조의 전랑이 가진 후임자 천거권과 청직(淸職)으로의 승진을 막을 것, 『주례』의 정신을 받아들여 군주와 재상의 권한을 높이고 군주가 친병(親兵)을 거느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④ 이익은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곽우록』에서 농민의 각 호구마다 영업전의 면적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영업전의 매매는 금지하고 영업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① 유형원은 호구(戶口)를 기준으로 인두세를 부과하던 역역(力役)을 토지에 부과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시도하였다. ② 유몽인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유몽인은 은광의 개발, 화폐의 유통, 선박과 수레의 이용, 벽돌의 사용, 상점과 여관을 합한 노포(路鋪)의 설치 등을 주장하여 유통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유몽인의 사상은 북학론(北學論)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③ 허목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허목은 민생안정을 위해 부세 징수의 완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의 실시에 반대하였고, 서얼허통에 반대하였다는 점에서는 봉건적 양반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16. 다음 설명의 밑줄 친 '그'가 집권하여 개혁을 펼치던 시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고른 것은?

> 그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는 단호한 결의로 47개소만 남기고 대부분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 갑신정변	㉡ 신미양요	㉢ 임술농민봉기
㉣ 제너럴셔먼호 사건	㉤ 오페르트 도굴 사건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6. 정답 : ③
제시문에서 밑줄 친 그는 흥선대원군이다. 흥선대원군은 600여 개의 서원 중 47개소만을 남기고 나머지 서원을 모두 철폐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는 1863년에서 1873년까지의 기간이고 ㉡ 신미양요(1871. 5), ㉣ 제네럴셔먼호 사건(1866. 7), ㉤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1868. 4)이 있었다. ㉠ 갑신정변(1884), ㉢ 임술농민봉기(1862)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추진되었던 시기의 사실이 아니다.

17. 일제강점기의 일본의 통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3·1 운동은 일본의 통치 방법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② 1910년대 일본은 우리 민족을 회유하기 위하여 문화통치를 펼쳤다.
③ 1920년대 실시된 회사령은 우리 민족의 기업 설립을 방해하였다.
④ 1930년대 이후 전쟁이 시작되면서 보통경찰제가 헌병경찰제로 바뀌었다.

17. 정답 : ①
① 3·1 운동은 일제의 통치 방식이 헌병 경찰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직후에는 헌병 경찰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른바 '문화통치'는 1920년부터이다. ③ 회사령은 1910년 허가제로 실시되어 우리 민족 기업 설립을 방해하였으며, 1920년 회사령 철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민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④ 일제의 통치 방식이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뀐 계기는 1920년대 문화통치의 시작과 함께 이고 보통경찰제가 헌병경찰제로 바뀐 것은 사실이 아니다.

18. 다음은 어느 신문의 창간사이다. 이 신문이 창간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귀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 함.
> 우리는 바른대로만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펴일 터이요, 사사로운 백성이라도 무법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 신문에 설명할 터임.
>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는 외국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른즉, 혹 편벽된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 보아 실상 사정을 알게 하고자 하여 영문으로 조금 기록함.

①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강압적인 문호 개방을 강요하여 강화도 조약 체결
②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리던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
③ 별기군에 비해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민겸호 집과 일본공사관을 습격하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

④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에 따라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이범진・이완용 내각이 새로 출범

18.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독립신문 창간사이다. ① 독립신문은 고종이 아관파천(1896. 2)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이후 이권침탈이 본격화되자, 자주 국권을 목적으로 1896년 4월 7일 창간되었다. 아관파천으로 인해 친일적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이범진, 이완용을 비롯한 친러파 내각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②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876년의 사실이고, ② 고종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파견한 것은 1907년 6월의 사실이다. ③은 임오군란으로 1882년 6월의 사실이다.

19. 다음은 일제시기 어느 단체를 설명한 것이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선사정연구회, 정우회와 같은 좌우 협력 운동의 단체로 결성되었다. 이 단체에는 조선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자, 천도교 구파, 불교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으며, 전국에 약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고,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설립하려는 운동을 펼쳤다.
② 일본인의 조선이민을 반대하였다.
③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광주학생의거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한 민중대회를 열 것을 계획하였다.

19. 정답 : ①
제시된 좌우 협력 운동 단체는 신간회이다. 신간회는 학생 운동, 청년 운동, 여성 운동 및 형평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하였으며, 노동운동 및 농민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일본인의 조선 이민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를 주장하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진상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이 운동을 거족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다. ①은 1922년 조직되어 활동한 민립대학기성회에 대한 설명이다.

20. 다음은 한국의 광복 이후에 대한 회의 결정문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조선을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고…(중략)…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 2. 조선 임시 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중략)… 남조선 미합중국 관구와 북조선소 연방국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 제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공동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 3.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를 협약하기 위하여 미국・영국・중국・소련 여러 나라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 4. 남・북 조선에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중략)…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국, 소련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등 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였다.
②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국은 2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대상인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③ 이 소식을 접한 김구, 이승만 등의 우익 세력은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신탁반대운동에 나섰다.
④ 미국과 소련은 회의 결정 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20.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미・영・소・중 4개국의 최대 5년 간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고, 김구, 이승만 등의 우익 세력은 신탁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등 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미・소 군정의 실시와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를 최초로 언급한 회담은 1945년 2월 얄탈회담이다. ② 미・소 양국이 협의의 대상인 정당 및 사회단체 선정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것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6. 3~5)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단체 뿐 아니라 반대하는 단체까지 참여시키자고 하였고,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단체만을 참여시키자고 주장하였다. ④ 미국와 소련 사이의 미・소 공동위원회는 덕수궁 및 개성에서 2차에 걸쳐 개회되었다

■ 총평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전반적으로 기본기를 갖고 꾸준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정답을 체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택 지문에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끼어 있어서 흐름만을 공부했거나, 특정 부분을 띄엄띄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내년부터 경찰채용 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인지, 작년 3차 시험에 비해서도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승**하였다. 단원별로 보면, 전체 20문제 중 고대사에서 6문제, 고려사에서 4문제, 조선사에서 5문제, 근현대사

에서 5문제가 출제되어 전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항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자면,
1) 고대사 관련 문제가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는데, 1번 문제의 경우 신석기 유적으로서 7급 시험에만 다뤄졌던 청진 농포동 유적이 가부장제와 관련해서 틀린 내용으로 하여 정답으로 출제되었다. 1번 문제의 경우에는 나머지 선택 지문도 선사 시대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된 기본서로 정확하게 공부한 학생이 아니었다면 정답을 체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번 문제의 경우도 신라의 골품제에서 5두품은 10관등 대나마까지 진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요구하였다. 3번은 몇몇 강사들과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광개토대왕릉비에 한강 이북의 50여 개의 성을 공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문제 자체의 오류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번(고대 승려 관련)과 5번(발해 문왕과 선왕의 업적 구별 관련), 6번(신라 하대 관련)은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전혀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려사와 관련하여 7번(대각국사 의천의 활동 관련), 8번(최승로의 시무 28조와 성종의 업적 관련), 10번(삼별초 관련)도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9번(고려의 대외 관계 순서)의 경우 선택지문이 많아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수업시간이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였다.
3) 조선사 관련해서는 11번(대동법의 실시 배경), 12번(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의 대외 인식), 13번(탕평비와 영조의 업적 관련), 14번(비변사 관련)도 평상시에 다뤄졌던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15번(이익 관련)의 경우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선택 지문 내용이 디테일하게 실학자들의 주장을 서술하였으므로 두루뭉술하게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다.
4) 근현대사 파트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16번(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사실), 17번(일제의 통치 방식 관련), 18번(독립신문의 발간 시기), 19번(신간회 활동), 20번(모스크바 3상 회의의 내용) 등 수업시간에 모두 익히 다뤄졌던 내용이 출제되었으므로 사료만 적당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근현대사 파트에서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시험은 앞으로의 경찰 시험의 난이도와 유형을 확정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시험은 실질적 난이도도 상승했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사 단일 과목의 합격점은 **75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예년 시험에 비해 전체적으로 10점에서 15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 과목은 정도(正道)는 있어도 왕도(王道)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추세를 고려할 때 요약서나 서브노트로 공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실 있는 기본서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 한국사는 특정한 유형이나 난이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이번 시험이 이런 특징을 또한번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번 시험에서 자신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낸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다시 기회가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의 공부 방법이나 기본서 및 강좌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다시 도전하면 한국사는 극복 불가능한 과목은 절대 아닐 것이다. 어느 시험이든 끝나고 나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법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연연해 하기보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시험을 본 제자님들과 수험생들에게 모두모두 정말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박수와 함께 위로를 보낸다..